■ 전국도서관대회 제 1 주제발표

2000년대를 지향한 사서직의 역할

이 병 목
연대도서관학과교수

1. 머릿말

1970년대 초반에 당대 도서관학계의 석학이었던 미국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대학교의 셰라(J. H. Shera)교수는 미래의 사서에 관해 얘기하는 가운데 이렇게 술회한 적이 있다. 즉 그는 '미래의 도서관에 관해서 쓴 자료들은 꽤 많이 있지만 미래의 사서에 관한 인쇄물은 거의 찾아 볼 수가 없다'[1)2)] 라고 했다. 그때로부터 15여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경우는 더 말할것도 없고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사서직의 장래 혹은 역할을 다룬 문헌은 여전히 드문 실정에 있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으나 생각컨대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미래를 내다보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데 있지 않을까 여겨진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은 이제 '2000년대를 지향한 사서직의 역할'에 관해 이야기를 해야 하는 본인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다. 미래에 관해서 논급하자면 과학적인 바탕위에서 적어도 현실을 올바로 직시할 수 있어야 하고, 미래를 안식과 해안으로 그리고 직관력과 통찰력으로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어느것 하나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본인으로서는 나름대로의 독창적인 사서직의 미래상을 제시하지 못하는 부끄러움과 아쉬움을 안고 있다. 따라서 본인은 차선의 방법으로서, 이 문제에 관해 여러사람들이 고찰해온 내용을 살펴 그 가운데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는데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뽑아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야기의 순서는 첫째, 사서가 활동무대로 삼고 있는 사회가 어떻게 변모해가고 있는가에 관해 그 분야의 전문가들인 사회학자들이 분석한 발전의 특성들을 살펴보고 둘째, 사서가 주로 다루는 책과 주로 일하는 도서관의 변모하는 모습을 한 급진적인(?) 도서관학자의 이론을 통해 알아보고 셋째,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사회에서 사서가 수행해야 할 역할과 이를 뒷받침하는 교육원리에 대해 생각해보기로 한다.

---

1) Shera, Jesse H. *The Foundations of Education for Librarianship.* New York, Becker and Hayes, 1972. p. 493.
2) 셰라(Jesse H. Shera). 圖書館學의 社會學的 基盤. 윤영 옮김. 서울, 구미무역, 1984. p. 125.

2. 정보사회(정보화 사회)

도서관은 사회의 창조물이라고 한다. 이 말은 '사회는 인간경험의 기록을 장기간에 걸쳐 보존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도서관을 필요로 했다'[3]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렇게 볼 때 도서관은 하나의 '사회적 기관'[4]인 동시에 '사회의 구성인자'[5]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서관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가 어떻게 발전해가고 있는가에 대해 당연히 관심을 쏟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사서직이 현재는 물론 가까운 장래에 직면하게 될 사회환경이나 그러한 환경에로의 사회발전과정은 도서관과 사서의 역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당 관심을 갖게된다는 의미이다.

무스맨(Klaus Musmann)씨가[6] 말한바와 같이 어떤 학분분야에서 형성된 개념을 무비판적으로 다른 학문분야에 그대로 이식하려고 하는 일은 위험한 일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사회에 있어서 우리자신(사서)의 역할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체사회안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를 올바로 이해하여야 하고, 그러자면 사회연구 특히 사회의 발전을 다룬 훌륭한 연구결과들을 수용하고 응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다음은 그러한 연구가운데 몇가지를 뽑아본 것이다.

1960년대에 선풍적인 인기와 각광을 받았던, 캐나다의 커뮤니케이션이론가이자 문명비평가인 맥루한(Marshall McLuhan)교수는[7] 인류의 역사란 인간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도구나 기술, 즉 매체의 발달이라고 말했다. 그에 의하면 인류의 역사는 지배적인 커뮤니케이션 매체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4단계로 구분된다.

1. 첫째 단계는 구두커뮤니케이션에만 의존했던 원시부족시대
2. 둘째 단계는 약2,000년전의 한자나 알파벳의 발생이후부터 시작된 문자시대 또는 필사시대
3. 셋째 단계는 15세기 구텐베르그의 활판인쇄술의 발명이후부터 전기매체가 등장하기 전까지 약 4세기동안의 활자시대 혹은 인쇄문화시대
4. 넷째 단계는 전기가 등장한 20세기의 전기매체시대이다.

영국의 초라파스(D. N. Chorafas)교수는[8] 산업혁명은 이미 지났는데 지식혁명(knowledge revolution)이 이를 대치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 지식혁명의 수혜자는 상당수의 인구가 기술을 소유하고 있는 기술선진국이라고 했다.

미국의 사회학자 드러커(Peter Drucker)교수는[9]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조직, 응용하는 것이 모든 노동의 기초가 되고 생산성을 높이는 토대가된다고보는 지식사회(knowledge society)의 출현을 개괄한 바 있다. 그에 의하면 지식사회는 새로운 부류의 전문직

3) *Ibid.* p. 40.
4) *Ibid.* p. 53.
5) *Ibid.* p. 47.
6) Musmann, Klaus. "Will There Be a Role for Librarians and Libraries in the Post-Industrial Society?" *Libri,* Vol. 28 No. 3 (Sept. 1978). p. 229.
7) 맥루한(Marshall McLuhan). 미이디어의 理解. 서울, 三省出版社, 1982.
8) Chorafas, D.N. *The Knowledge Revolution.* London, George Allen & Unwin, 1968.
9) 드러커(Peter Drucker). 단절의 시대. 서남원 역. 서울, 서음출판사, 1981.

종사자를 낳게한다고 하였다.

미국의 또다른 사회학자 토플러(Alvin Toffler)씨는[10] 공업국가들, 특히 미국은 사회발전에 있어서 세번째 변화의 물결에 들어서고 있다고 주장한다. 토플러씨가 말한 세가지 물결의 시대는 다음과 같다.

1. 첫번째 물결의 시대는 기원전 약8,000년부터 1650년 내지 1750년경까지 지속된농업사회로서, 그 물결의 동인은 농업혁명이다.
2. 두번째 물결의 시대는 1650년경부터 시작해서 1955년 내지 1965년경까지 지속된 산업사회로서, 그 물결의 동인은 산업혁명이다.
3. 세번째 물결(the third wave)의 시대는 1955년 이후의 시대로서, 미국의 경우 이때 사상 처음으로 화이트칼라와 서비스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수가 블루칼라의 숫자를 넘어섰고, 컴퓨터의 이용이 고조되기 시작했으며, 정보부문을 포함한 사회 각 부문에서 혁신적인 변화가 대두되기 시작한 물결이다.

한편 하바드대학의 저명한 사회학자인 벨(Daniel Bell)교수는[11] 탈산업사회(post-industrial society)라고 하는 산업사회이후의 사회에 대한 개념을 전개하고 있다. 그는 그의 저서 「탈산업사회의 도래」에서 탈산업사회의 중요한 속성을 다음과 같이 5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1. 서비스경제로의 전환
2. 전문직, 기술직종사자수의 증가
3. 경험적 지식보다는 이론적 지식의 중요성 증대
4. 기술성장을 지향하는 미래 지향성
5. 새로운 지적기술의 창출이다.

이처럼 사회학자, 미래학자, 혹은 사회예측가들이 다가오는 사회에 있어서(혹은 이미 도래한 사회에 있어서)지식의 중추적인 역할이라든가 전문직적 기술직적 두뇌집단의 출현 및 서비스지향적인 경제로의 전환 등을 강조한 사실은 사서들에게는 크게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내용일 뿐 아니라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드린다고 가정할때 '고무적'이라고까지 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를테면 지식과 정보에의 접근과 배포는 과거와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사서직의 주된 관심사임에 틀림없으리라고 많은 사람들이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정보와 지식이 주축을 이루는 정보사회에 있어서 사서의 역할이나 도서관의 역할이 하나 둘 관계 학자들에 의해 부정적으로 투영되고 있는 사실을 또한 다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때 버팔로의 뉴욕주립대학교 도서관학 및 정보학대학원장을 역임한 줄리아노(Vincent E. Giuliano)씨의[12] 얘기가 그렇고, 현재 영국국립도서관

10) 토플러(Alvin Toffler). 제 3 의 물결. 劉載天譯. 서울, 학원사, 1985

11) Bell, Daniel. *The Coming of Post-Industrial Society.* New York, Basic Books, 1973.

12) Giuliano, Vincent E. "A Manifesto for Librarians." *Library Journal,* Vol. 104 No. 16 (Sept. 1979). pp. 1837-1842.

대출부(BLLD)의 책임자로 있는 라인(Maurice B. Line)씨와[13] 일리노이대학교 도서관학 및 정보학대학원의 랭캐스터(Frederick Wilfred Lancaster)교수의[14] 얘기가 그러하다. 뿐만 아니라 도서관 비평가인 에반스(Christopher Evans)씨는[15] 책이 사라지고 사서직은 몰락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바론과 쿠노(I. Barron and R. Curnow)씨[16] 역시 마이크로전자기술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장차 우리앞에서 사라질 영역가운데는 책과 현재의 도서관봉사 활동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심지어 영국의 리딩대학교 도서관장인 톰선(James Thompson)씨는[17] 「도서관의 종말」이란 책을 1982년에 출간한 바도 있다. 또한 미국 아이오와주에 있는 토블러원대학교의 벨링햄(E. P. Bellingham)이란 교수는[18]—고먼(Michael Gorman)씨의 말을 빌리면 이 분은 혁신적이며 영향력있는 정보학자가운데 한 사람이다—오늘날 종이가 주로 펄프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종이에 인쇄된 책이 사라지게 되면 목제품인 책상도 사라지게 된다는 비약적인 이론을 전개하여 '책상없는 사회' (tableless socity)의 도래를 전망하기까지 했다.

그러면 '사서에게 고함'이란[19] 언사까지 불사하면서 이렇게 충격적인 선고를 내리는 이들의 주장은 과연 어떤 것인지 그중 가장 대표적인 인물인 랭커스터교수의 얘기를 들어보기로 한다.

3. '책없는 사회'와 '도서관소멸'이론

랭커스터교수는 약10여년전에 '책없는 사회'(paperless society), 즉 종이에 인쇄된 출판물이 전자출판물로 대치된다는 혁신적인 이론을 처음으로 발표했다. 그 이후로 그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강연을 했고, 두권의 책을 썼으며,[20] 여러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최근에 들어와서 그는 자기가 내린 여러가지 예측들을 지난 10여년동안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과 비교해서 재평가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었다. 그래서 그는 그 평가를 미국도서관협회의 기관지 최근호(*American Libraries,* 1985년 9월호)[21]에다 발표했다. 여기서 특기할 것은 그가 이제까지 주장해온 내용을 자기 스스로 요약해서 함께 소개했다는 점이다. 다음은 그러한 내용요약과 함께 그가 내린 평가를 간추려서 살펴본 것이다.

---

13) Line, Maurice B. "Libraries and Information Service in a Post-Industrial Society." *Journal of Library Automation,* Vol. 14 No. 4 (Dec. 1981). pp. 252-267.

14) Lancaster, F. W. "The Paperless Society Revisited." *American Libraries,* Vol. 16 No. 8 (Sept. 1985). pp. 553-555.
Lancaster, F.W. "Future Librarianship: Preparing for an Unconventional Career." *Wilson Library Bulletin,* Vol. 57 No. 9 (May 1983). pp. 747-753.

15) Evans, Christopher. *Mighty Micro.* Gollancz, 1979.

16) Barron, I. and Curnow, R. *Future with Microelectronics.* London, Open University Press, 1979.

17) Thompson, James. *The End of Libraries.* London, Clive Bingley, 1982.

18) Gorman, Michael. "Toward the Tableless Society: A Brief Interview with E. Palfrey Bellingham." *Library Journal,* Vol. 110 No. 2 (Feb. 1, 1985). pp. 45-47.

19) Giuliana, Vincent E. "A Manifesto for Librarians."

20) Lancaster, F.W. *Libraries and Librarians in Age of Electronics.* Arlington, Va., Information Resources Press, 1982.
Lancaster, F.W. *Toward Paperless Information System.* New York, Academic Press, 1978.

21) Lancaster, F.W. "The Paperless Society Revisited."

랭커스터교수가 예측했던 일들

이 주제에 관한 초기의 저술들에서 랭커스터교수는 전혀 책이 없는 커뮤니케이션체제를 논급했다. 그는 이 체제의 이용자로서 가상의 한 과학자를 상정하여 이 체제의 일반적인 특성을 다음과 같이 개괄했다. 이 과학자는 컴퓨터의 단말장치를 이용하여 전자공책을 사용하고, 뒤이어 나올 전자출판물의 원고를 작성하며,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정보원에 접근하고, 정보를 색인·축적하며,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전문직 동료들과 정보망을 통해 의사를 소통할 것이다. 한편, 출판은 전자출판이 될 것이다. 이를테면, 과학논문은 학술지에 인쇄되기 보다는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될 것이고, 저자 편집자 원고심사위원 사이의 모든 커뮤니케이션에는 전자우편이 이용될 것이다.

랭커스터교수가 그러한 전자체계가 출현하리라고 예측하게 된데는 첫째, 그런 기회가 주어지리라는 이유에서였다. 여기서 말하는 기회란 각종 컴퓨터 단말기가 사무실과 가정에 보편화된 것이고, 여러가지 목적으로 이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한다. 두번째 이유로서 그는 정보를 전형적인 가공품인 종이에 인쇄된 책에 수록하여 배포하는데는 점점 더 많은 비용이 든다고 지적했으며, 그 결과 얼마가지 않아 이러한 형태의 출판물을 계속 내는 일은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일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우기 그는 종이에 인쇄된 형태에 수록된 정보에 점점 더 접근이 멀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랭커스터교수는 완전히 전자화된 체제는 정보에 대한 접근성 및 선별성과 배포속도를 개선시키는 많은 잇점을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종이로부터 전자에로의 전환은 정상적이며 예상가능한 진화과정의 한 부분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쇄된 책은 마치 그 이전의 필사형태의 커뮤니케이션 매체를 대치시켰듯이 인쇄된 책 이외의 그 어떤 매체한테 자리를 내줄 수도 있으며 내주게 될 것이라고 했다.

변화의 단계

랭커스터교수는 그가 책없는 사회에 대해 생각을 깊이함에 따라 진화과정의 여러단계를 구분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발전(진화과정)의 순서는 다음과같이 개괄할 수 있다고 했다.

부면 1 : 출판물의 형태

각종 형태의 출판물이 전자출판물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영향을 받는 순서는 상대적인 요구와 예상되는 혜택을 반영하는 논리적인 순차가 된다.

부면 2 : 출판에 있어서의 컴퓨터의 응용(진화순서별)

a. 종이에 인쇄함
b. 인쇄한 출판물에 전자방식을 이용함
c. 인쇄방식을 이용하지 않는 새로운 출판물을 창출해냄
d. 완전히 새로운 수용력을 지닌 형태의 출판물이 소개됨
e. 기존의 인쇄형태 출판물의 대치가 일어남

부면 3 : 축적량

a. 서지인용에 한함
b. 초록

c. 본문전체(전문)

부면 4 : 영향을 받는 정보봉사의 형태

a. 문헌탐색

b. 질문해답

c. 문헌제공

부면 5 : 주제

a. 과학, 기술

b. 사회과학

c. 인문과학, 대중자료

부면 6 : 영향을 받는 봉사대상자의 형태

a. 기관이용자

b. 개인이용자

혹은 관종별로는 :

a. 특수도서관

b. 대학도서관

c. 공공도서관

쓸모없이 된 '물리적인'도서관

우리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컴퓨터는 두가지 매우 독특한 방법으로 도서관에 응용되어 왔다. 즉(1) 도서관내부의 일상적인 기록업무를 자동화하는 일과, (2) 자관에 없는 정보원에의 접근을 가능하게 해주는 일이었다. 랭커스터교수는 지금까지로 봐서는 두번째 방법이 더욱 중요하다고 했다. 그에 의하면 실제 이 방법은 무엇으로 도서관을 구성하고 있는가 하는데 대한 우리의 개념을 바꾸어 놓기 시작했는데, 이는 막대한 양의 정보가 유형의 물리적인 가공품인 서적형태가 아닌 무형의 전자형태에 수록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은 그로 하여금 지금과 같이 장서를 소장하고 있는 하나의 '물리적인'기관으로서의 도서관이 종국에는 무용지물이 되고 말것이라고 예측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변화가 조직체내의 전문가들(사서들)과 그들의 정보자료이용 역할(사서들이 수행하도록 훈련받은 역할)까지도 쓸모없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는 반드시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사실상 정보전문직은 장래에, 적어도 가까운 장래에는 과거보다도 더욱더 중요해질 것이다라고 했다.

랭커스터교수는 그러나 오늘날의 사서로 하여금 앞으로 다가올 다음 몇년간에 그들이 맡은 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자면 우리들의 전문직 교육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와야만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우리들의 관심도 하나의 물리적 기구인 도서관으로부터 능력있는 정보전문가인 동시에 커뮤니케이션 촉진자인 그리고 여러가지 상이한 환경아래에서도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이를테면, 연구진의 불가결한 일원으로서 혹은 자유활동가로서 활약할 수 있는 사서에게로 돌려져야만 한다고 했다.

책은 불멸이라는 신화

랭커스터교수는 앞에서 말한 아이디어들이 아직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아니했다고 보고 있다. 실제, 그를 비평한 사람가운데 어떤 사람은 책없는 사회란 한갖 신화에 불과하다고 비판한 적이 있다. 그러나 랭커스터교수는 이에 대해서 말하기를 전자출판에 대한 거부감은 인쇄된 책이 우리 사회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이고, 쉽게 사라지기에는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 있어 왔다는 다소 막연한 느낌에 연유를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랭커스터교수는 또 말하기를 인쇄된 책은 불과 500년밖에 지속되지 않았는데 이것을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역사에 비추어 본다면 한갖 점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리고 책을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내세운 몇몇 이유들조차도 그로서는 별반 놀라운 일이 못된다고 했다. 이를테면, '나는 해변에서 책을 읽고 싶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주장할 때 그는 사람이 해변에서 책을 읽기 시작한지가 얼마나 되는가?라고 되묻는다. 모르긴 해도 100년 미만일 것이라고 했다. 혹은 '나는 목욕탕에서 책을 읽고 싶다'는 주장에 대해 그는 또 그렇다면 우리가 목욕탕, 혹은 읽기에 적절한 목욕탕을 갖게 된지가 얼마나 되는가?고 되묻는다.

우리는 어디에 와 있는가?

랭커스터교수는 그가 10년전에 예측했던 일들과 그간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을 비교해서 현재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가를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전체로 보아서 진화는 내가 10년전에 예상했던 것 보다 더 빨리 진행되고 있다고 믿는다. 개인용 컴퓨터는 보편화되어가고 있으며, 전자우편은 점점 더 많은 이용자집단에 확산되어가고 있다. 비디오텍스기술은 각종 전자정보자료들을 직접 일부가정에까지 전달하고 있다.

전자출판의 발전은 가장 괄목할만한 것이었다. 현재는 수백개의 데이터베이스에 하나의 단말기로부터 접근할 수 있다. 게다가 이들 데이터베이스는 아주 일반적인 주제에서부터 고도로 전문적인 주제에 이르기까지 놀라울만큼 다양한 주제를 포괄하고 있다. 그중에는 일반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주제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 데이터베이스산업계는 이러한 일반대중들에게 적절한 요금으로 그들이 관심을 갖는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으며, 그 결과 개인용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10년전에 도서관이 접근했던 그 수준에서 전자정보원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전자출판물은 점점 더 다양한 형태의 매체로 나타나고 있으며, 컴퓨터 단말기나 텔레비젼 수상기를 통해서 접근할 수도 있고 테잎이나 디스크형태로 배포할 수도 있다.

전자기술은 저술가의 저술방법에도 일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많은 저술가들은 현재 타자기 대신에 컴퓨터 단말기로 원고를 작성하고 있으며, 일부는 그들의 원고를 전자방식으로 출판사에 송고하고 있다.

도서관에서의 변화

물론 이러한 변화의 흐름은 도서관에도 영향을 미쳐왔다. 많은 도서관들은 현재 사상 처음으로 이용자들에게 수준높은 문헌탐색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점점 더 많은 종류의 일반 참고도서, 이를테면 백과사전, 사전, 명부(주소록)가 온라인으로 접근이 가능해지게 되면 사실정보에 관한 질문의 회답은 종이에 인쇄된 자료에서 보다는 전자자료에서 찾아지게 될 것이다.

문헌제공(document delivery) 역시 영향을 받는다. 온라인 종합목록은 필요한 자료를 찾아내는 작업을 대단히 간소화시켰다. 더우기, 도서관이나 출판사로부터의 문헌주문은 이제 단말장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물론, 문헌전체 즉 전문에 대한 온라인 접근이 현재로서 가능하다는 사실은 문헌제공이－물리적인 재생산과 우송이란 의미에서－종국에는 사라지리라는 것을 암시한다. 즉 전문(全文)은 〔도서관을 제쳐놓고〕 전자보관소로부터 이용자의 단말장치에 직접 전달되게 될 것이다.

책이 없는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생각은 10년전 보다는 그간에 일어났던 급속한 발전때문에 저항감이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생각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이는데는 여전히 몇가지 장벽이 가로놓여 있다. 그중 진정한 의미에서의 기술상의 한가지 장벽은 스크린에 나타나는 영상이 조잡하다는 사실이다.

또 다른 장벽으로는 심리적인 것을 들 수 있으며, 어떤 면에서는 이 장벽이 보다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기록이 전자형태의 매체로만 존재한다는 사실에 불안해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을 전자매체로 수록하는 일이 점점 쉬워지고 값이 싸지게 되면 이러한 사정은 달라질 것이다. 더우기, 컴퓨터와 함께 자라온 젊은 세대에게는 종이에 인쇄한 책에 대한 요구가 더욱더 줄어들 것이다.

책을 대신한 전자출판물

지난 10년동안에 꽤 많은 변혁이 일어났지만 진정한 의미의 전자출판물의 수가 불과 얼마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아직은 인쇄된 책이 현재 우리가 전자형태로 이용할 수 있는 출판물의 종류도 위협을 받지는 않고 있다. 현재까지의 대부분의 전자출판물은 인쇄된 책을 단순히 전자방식으로 옮겨 놓았을 뿐이기 때문이다. 진정한 전자백과사전이라면 단순히 종이에 인쇄된 지면을 단말장치의 영상에 재현시키는 것 이상이 될 수 있고 또 될 수 있어야 한다.

종이에 인쇄한 출판물의 대치란 꼭 불가피한 일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가 그러한 변화를 거부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우리는 책이 없는 사회에로의 길을 이미 멀리 걸어왔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을 일이 일어나리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끝으로, 내가 전자화한 미래에 관해 논문을 발표했다는 사실은 내가 그러한 미래를 지지한다거나 열광적으로 마지하려 한다는 것을 반드시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밝혀둔다.

지금까지의 랭커스터교수의 '책없는 사회'이론의 요지를 그의 최근의 글을 통해서 살펴보

았다. 물론 책이나 도서관의 장래에 대해 이처럼 부정적으로 비관적인 견해가 지배적인 것은 아니다. 셰라(J. H. Shera),[22] 디 제나로(Richard De Gennaro),[22] 라울리(Jenny Rowley),[24] 데사우어(John P. Dessauer)씨[25]를 비롯한 우리들 대부분이 여전히 긍정적이며 낙관적인 견해를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사회는 이전까지와는 다른 형태로 변모하고 있고 또한 기술은 그 어느때보다도 급속히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사서직은 마땅히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이에 대응하는 역할수행을 모색해야할 것이다.

4. 미래의 사서직

사서직의 역할

사서란 직업은 우리 모두가 잘아는 바와 같이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사서직은 수세기를 거쳐 내려오면서 변화해 왔다. 한때는 '학자사서'로서 명예와 권위를 누렸었는가 하면, 다른 한때는 '서고지기'를 면치 못했었다. 오늘날에는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기술이 사회를 급격히 변모시키고 있기 때문에 사서직은 이에 대한 대처를 강구하지 않으면 아니되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어렴풋하게나마 앞을 내다 볼 수 있는, 말하자면 서기 2000년까지는 이제까지 사서직이 수행해온 기본적인 역할이 크게 바뀌리라고는 예상하지 않는것 같다.[26] 여기서의 기본적인 역할이란 셰라박사가 적절히 표현한 것처럼 사회에 있어서 '사서의 역할은 사회의 이익을 위해 필사기록의 활용을 극대화시키는 일'[27]을 일컫는다.

물론 기술은 이경우에 있어서 필사기록물(정보)의 활용을 극대화 시키기 위한 수단이나 방법이 된다. 따라서 정보사회에 있어서 컴퓨터나 통신기술의 발전은 사서의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관련된 활동들을 확대 내지 심화시킨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그러한 배경하에서 살펴본 활동들이다.[28]

---

22) Shera, Jesse H. *The Foundations of Education for Librarianship.* p. 494.

23) De Gennaro, Richard. "Libraries, Technology, and the Information Marketplace." *Library Journal,* Vol. 107 No. 11 (June 1, 1982). pp. 1045-1054.

24) Rowley, Jenny. "In Defence of the Book." *Library Association Record,* Vol. 83 No. 12 (Dec. 1981). pp. 576-577.

25) Dessauer, John P. "Why Books Won't Die." *Publishers Weekly,* Vol. 216 No. 22 (Nov. 26, 1979). pp. 23-25.

26) Higham, Norman. "Mission 2000." *Library Association Record,* Vol. 85 No. 10 (Oct. 1983). p. 361.

27) 셰라(Jesse H. Shera). 圖書館學의 社會學的 基盤. p. 27.

28) 주로 다음의 자료들로부터 도움을 받았음.

Asheim, Lester. "Ortega Revisited." *Library Quarterly,* Vol. 52 No. 3 (July 1982). pp. 215-226.

Birdsall, William F. "Librarianship, Professionalism, & Social Change." *Library Journal,* Vol. 107 No. 3 (Feb. 1, 1982). pp. 223-226.

Higham, Norman. "Mision 2000." *Library Association Record,* Vol. 85 No. 10 (Oct. 1983). pp. 359-362.

Lancaster, F. W. "Future Librarianship: Preparing for an Unconventional Career." *Wilson Library Bulletin,* Vol. 57 No. 9 (May 1983). pp. 747-753.

Lancaster. F.W. "Libraries and the Information Age." In *The ALA Yearbook 1980* (Chicago, ALA, 1980). pp. 9-19.

1. 정보상담가로서의 활동

정보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거나 사람들이 정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직의 도움을 필요로 하거나 사서직이 변화하는 환경에 제대로 적응하게 되면 정보상담가로서의 활동에 대한 요구가 증가한다. 랭커스터교수는 미래의 사서가 정보상담가로서의 활동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추진하려면 이제까지의 인습적인 도서관의 테두리를 벗어나(deinstitutionalized) 보다 더 많은 정보의 세계로 활동 무대를 옮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것이 사서가 미래에도 살아남는 길이라고 했다.

2. 정보전문가로서의 활동

미래의 사서직은 현재보다도 그들이 다루는 주제면에서 좀더 전문화해야 한다. . 그러나 이러한 지식의 독점은 교육수준의 향상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위협을 받게 된다. 따라서 정보전문가로서 활동하자면 주제면에서 보다 전문화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3. 정보분석가로서의 활동

정보신청자의 요구에 맞게 가장 훌륭한 정보를 탐색, 선정, 검색해서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4. 전자정보전문가로서의 활동

전자출판물의 계획 및 디자인과 전자정보망의 설계 및 운영, 전자정보파일의 조직 등 전자정보 봉사를 구상하고 시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서를 랭커스터교수는 '전자사서(electronic librarian)[29]'라고 명명했다.

5. 이용자를 교육하는 활동

앞으로 전자정보자료가 점점더 급속도로 확산될 것이기 때문에 이용자들을 이러한 자료에 접근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교육시켜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 스스로도 필요한 자료를 선정하고, 평가하고, 개발하도록 그들을 가르치는 교육적인 활동을 추진해야 한다.

6. 정보균등분배자로서의 활동

도서관 이용자가 데이터베이스로 이용할 수 있는 정보가 증가함에 따라 그러한 정보이용에 요금을 부과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무료로 해야 하는가에 대해(특히 공공도서관의 경우) 열띤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 경우에 사서는 도서관 봉사의 이념에 따라 '정보빈자' 와 '정보부자' 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무료

Line, Maurice B. "Libraries and Information Services in a Post-Industrial Society." *Journal of Library Automation*, Vol. 14 No. 4 (Dec. 1981). pp. 252-267.

Park, Chung I. "The Resurrection of Libraries." *The Coint Reports*, Vol. 3 No. 3, 1982.

Park, Chung I. "Transforming Librarians." *The Coint Reports*, Vol. 5 No. 5, 1985.

Surprenant, Tom. "Future Libraries." *Wilson Library Bulletin*, Vol. 58 No. 8 (April 1984). pp. 574-575.

Veaner, Allen B. "Librarians: The Next Generation." *Library Journal*, Vol. 109 No. 6 (April 1, 1984). pp. 623-625.

29) Lancaster, F.W. "Future Librarianship: Preparing for an Unconventional Career." p. 751.

접근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7. 정보를 여과하는 활동

오늘날 생산되고는 정보의 양은 '정보폭발' 로 표현될 만큼 점점 더 증대되고 있고, 또 이러한 정보가 전달되는 속도도 가속화 되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가 이를 입수하는 능력은 점점 더 제한받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총체적인 정보가운데서 개개 이용자의 요구에 맞는 정보만을 여과 선별해 내는 일이 필요해진다.

사서직의 교육

미래에 사서직이 계속 존재해야 한다면 물론 사서직을 위한 교육기관도 존재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교육기관은 사서가 되기 위한 공식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사서의 역할에 대한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면 여기서부터 비롯되어야 한다. 그러기에 근래 우리나라에서도 학자들 사이에 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테면, 최성진·윤병태·구본영교수의 '한국적 도서관학 교육과정 연구,'[30] 한순정교수의 '최근 미국의 정보전문가 교육의 동향과 한국 사서교육과정 개정의 기본방향,'[31] 한복희교수의 '도서관 및 정보전문직 교육방향에 관한 연구,'[32] 정필모교수의 '도서관학 교육과정의 모형화를 위한 연구'[33] 김명옥교수의 '전문대학 도서관과의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34] 등이 모두 대체로 그러한 관심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미래의 도서관은 이를 운영해나갈 사서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 아주 크게 좌우될 것이고, 또 미래의 도서관이 그 도서관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로 하는 사서가 어떠한 사람이어야 하는가를 결정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35] 도서관 현장의 요구와 바램도 중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30) 최성진, 윤병태, 구본영. "한국적 도서관학교육과정 연구". 圖書館學, 제12집(1985). pp. 269-327.

31) 한순정. "최근 미국의 정보전문가 교육의 동향과 한국 사서교육과정 개정의 기본방향". 圖書館學, 제12집(1985). pp. 149-163.

32) 한복희. "도서관 및 정보전문직 교육방향에 관한 연구". 圖書館學, 제11집(1984). pp. 43-75.

33) 鄭駛謨. "圖書館學教科課程의 模型化를 위한 硏究". 圖書館學報(中央大學校圖書館學科), 제 4 집(1983). pp. 33-75.

34) 김명옥. "전문대학 도서관과(圖書館科)의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 圖書館學, 제11집(1984). pp. 43-75.

35) 세라(Jesse H. Shera). 圖書館學의 社會學的 基盤. p. 125.